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5

안수길의 <이런 춘향>에 나타난 에로스 차용 양상과 의미
-고전 <춘향전>의 패러디를 중심으로-

朱 銀 淑*

요 약

본 연구는 〈이런 춘향〉에 구현된 에로스의 차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지금까지 〈이런 춘향〉은 세태성이 강조된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고전 〈춘향전〉의 패러디를 중심으로 에로스의 차원에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에로스의 차용은 제목, 주체 간의 차이, 서사 세계와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표출된 유사성을 통해 구현되었다. 제목에서 여주인공의 에로스가 춘향의 에로스를 패러디했음을 보여주었다. 주체 간의 차이를 통해 현저한 차이를 극복하는 에로스가 구현된다. 이별-고난-기다림의 서사를 통해 기다림의 에로스가 극명하게 재현되고 이는 결국 여성의 고난과 사회문제를 노정하기에 이른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원텍스트를 전경화하고 원텍스트에 대한 일치와 친밀성을 확보한다. 이런 점에서 〈이런 춘향〉은 원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성향보다는 원텍스트를 계승하는 모방적 패러디의 성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숙한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작가는 독자를 쉽게 확보하고 당대를 향한 의식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창출하며 1950년대 전후문제를 표면화하기 위한 목적에 도달한다.

이와 동시에 〈이런 춘향〉은 회상이라는 서사적 전략을 통해 원텍스트와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작중인물을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통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발전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회상은 과거 기억의 재구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에로스의 단절'과 '습관적 기억으로 수렴되는 자유연상'이라는 두 가자 연계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계지점에서 이어지는 회상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로스를 다채롭게 담아냈다.

회상으로 표출되는 에로스는 억압과 분출을 통해 전후 한국사회의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고 동시에 고난의 극복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전후 소설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궤를 같이 함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여성의 고난을 통해 사회문제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은 동시대 작품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안수길, 이런 춘향, 고전 춘향전, 패러디, 에로스, 차용, 회상

목차

1. 서론
2. 계승 모방적 패러디로서의 에로스
3. 에로스의 회상 형식과 그 양상
4. 회상을 통해 드러난 에로스의 의미
5.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안수길의 〈이런 춘향〉에 나타난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 차용 양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데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안수길은 주로 『북간도』의 작가로 언급되고 있는바, 그의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간도를 중심으로 한 만주문학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1] 그런데 안수길의 작품[2]은 만주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보다 해방 이후 1950~1960년대 무렵의 남한 사회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 훨씬 많다.[3] 그중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1950년대 후반의 전후사회의 단면을 에로스의 회상 방식으로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춘향〉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춘향〉의 개별 작품론은 전무한 형편이고, 안수길의 단편집을 분석하는 중에 일정 부분 '세태성'에 연계한 분석[4]이 있는 정도다. 이남호는 그동안 북간도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안수길의 작품집 『풍차』(1963년)를 연구 대상으로 일상적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주의기법의 측면에서 '시대의 기록'으로서의 면모를 살피고, 〈이런 춘향〉을 포함한 단편작품들이 1950, 60년대 세태 소설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그는 "해방 정국의 정치적, 이념적 어수선함과 6·25 전쟁의 참상 속에서 또 4·19와 5·16의 격변 속에서 또는 외래 문물의 급격한 전파 속에서 한국 소설의 민족, 전쟁, 이념, 실존, 전통, 개인, 자유 등과 같은 다소 무거운 주제의

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2) 안수길의 작품 세계를 최인훈은 세 계열로 나눈 바 있다. 첫째 계열은 만주체험을 다룬 작품들이고, 둘째 계열은 월남 후 사소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담아낸 작품들이고, 셋째 계열은 지식인 소설이라고 일컫는 작품들이다(최인훈, 「사회의 역사 담은 완성적 작품세계」, 『세대』, 1977.7, 190~194면).
3) 일제 치하에서 출간된 첫 창작집 『북원』을 제외한다면, 해방 이후에 쓴 다섯 권의 창작집 『제삼인간형』(1953), 『초련필담』(1954), 『풍차』(1963), 『벼』(1965), 『망명시인』(1976), 그리고 그의 사후에 출간된 제7창작집 『초련』을 포함하여 모두 7권의 창작집이 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안수길은 학계에서 '보다 사실성의 밀도가 높은' 작가, 특히 다른 여느 작가보다 해방 이후 남한 사회의 세태를 성실하게 기록한 '세태소설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남호, 「안수길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 2013, 255면)
4) 위의 논문, 253~270면.

중압감을 견뎌내고 **평범한 개인의 일상을 통해 시대와 삶을 성실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데서 의의가 깊다."고 보고, 그중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이런 춘향〉의 '세태성'을 밝혀낸 것이다.

이남호의 연구는 〈이런 춘향〉의 세태성을 적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런 춘향〉이 한국전쟁 직후 흑인 병사를 대상으로 '양공주업'을 한 계모를 둔 진주가 그런 열악한 처지에서 백인 미군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풀어낸, 에로스[5]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태성'은 에로스의 차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작품을 에로스 측면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이런 춘향〉의 세태성의 의미를 확대·심화함으로써 한국 전후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런 춘향〉이 고전 〈춘향전〉의 패러디 작품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고전 〈춘향전〉을 패러디한 소설 작품으로는 이해조의 〈옥중화〉,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 안수길의 〈이런 춘향〉, 최인훈의 〈춘향뎐〉, 임철우의 〈옥중가〉, 김주영의 〈외설 춘향전〉에 이어 한국 신인작가 용현중의 장편소설 〈백설춘향전〉과 중국 조선족 작가 김인순의 〈춘향〉 등

5) 에로스는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남녀 사이에 열정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키곤 하다가 자신도 사랑의 열정에 빠지게 된 '사랑의 신'이다. 그후 에로스는 열정적 사랑을 뜻했고 점차 감각적, 본능적, 육신적, 가시적 사랑(요한네스 로쯔(저), 심상태(역), 『사랑의 세 단계-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서광사, 1985, 35~48면)을 의미하게 되면서 욕정과 관능까지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조광국, 『한국고전문학의 에로스』, 아카넷, 2015, 7면). 한편으로 플라톤에 의해서 에로스는 "인간의 선에 대한 사랑" (박찬식, 『플라톤 철학의 이해』, 정음사, 1984, 115~117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에로스는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본능적 사랑, 육신적 사랑, 욕정적 사랑, 관능적 사랑"과 "덕과 선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정신(혹은 영혼)의 영역과 관련이 깊고, 전자는 육신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광국, 「〈천수석〉에 구현된 에로스의 양상과 작가의 비판의식」, 『고소설연구』 43, 한국고소설학회, 2017(예정)) 본고에서는 에로스 개념을 육신적 영영에서부터 정신적 영역에 걸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이 있다. 특히 〈이런 춘향〉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기존의 〈춘향전〉 패러디 작품과는 달리, 에로스의 회상 형식을 통해 사랑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고 그와 병행하여 시대적 의미를 함축적이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패러디텍스트 〈이런 춘향〉을 대상으로 상호텍스트적 맥락에서 에로스의 차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본고는 먼저 2장에서는 〈이런 춘향〉이 고전 〈춘향전〉[6]에서 '춘향-이몽룡'의 에로스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차용하고 있는지 유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차용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그 차용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고전 〈춘향전〉과의 차이성을 중심으로 패러디텍스트 〈이런 춘향〉에서 에로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작중인물이 지향하는 에로스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의 관련 속에서 회상으로 전개되는 에로스가 어떤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안수길의 작품 세계에 대

6) 여기에서 〈이런 춘향〉이 패러디한 원텍스트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이다. 〈춘향전〉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진, 또는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고소설이다. 고전 〈춘향전〉은 각기 창작된 시대적 편차에 따라,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작가 및 향유 독자들의 지역적·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이본을 형성해 왔다. 이들은 크게 '별춘향전'계열과 '남원고사'계열로 양분되며, 더 세분하여 보자면 필사본으로 수용되던 초기에 '별춘향전'계열의 完板本 〈춘향전〉, '남원고사'계열의 京板本 〈춘향전〉 등으로 나눠진다.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 인식」, 『한국문학논총』 56, 2010, 458면.) 초기 판본이후 다양한 이본으로 재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패러디스트로서의 작가가 어떤 특정 판본을 안수길의 〈이런 춘향〉의 원텍스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특정 판본을 원텍스로 하였느냐에 따라 패러디 양상도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공통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이본에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전 〈춘향전〉의 원텍스트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모든 이본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전승되어 있는 기본 구조와 내용에 근거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한 이해, 나아가 1950년대 한국 전후문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계승 모방적 패러디로서의 에로스

패러디는 탈중심주의 원리로서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사회 전반의 경계를 넘나들며 나타난다. 패러디는 과거의 특정한 작품이나 장르를 전제로 새로운 담론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문학적 전략이다.[7] 의식적인 모방의 한 형식으로 패러디는 원텍스트와 패러디한 텍스트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8]고 할 수 있다. 원텍스트와의 동일성은 전제가 되며, 그 전제 위에서 차이를 통해 패러디한 텍스트는 문학적 효과를 산출한다.[9] 이미 알려진 요소들을 차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의도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닮았는지 유사성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10]를 살펴보는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익숙한 고전 〈춘향전〉을 기반으로 작가의 의도적 글쓰기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패러디텍스트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몽룡'의 에로스[11]를 차용하여 고전 〈춘향전〉과 많은 유사성을

7) 방금단, 「현대소설의 패러디 양상 연구」, 『돈암어문학』 27, 2014, 256면.
8) 이것은 패러디를 '차이를 가진 반복'이라고 한 린다 허천의 정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린다 허천,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54~56면.) 동일성과 차이는 양면적인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층위에 놓임으로써 의미를 드러낸다. (이승준, 앞의 논문, 77면.)
9) 위의 논문, 17면.
10) 그것은 패러디란 무조건적 차용이나 반복이 아닌,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담론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설기법이기 때문이다. (한승우, 「최인훈의 작가의식과 패로디 소설 고찰」, 『語文論集』 第46輯, 398면.)

보여준다. 그 유사성을 제목, 주체 간의 차이, 서사 세계, 사회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런 춘향〉은 제목에서부터 고전 〈춘향전〉을 패러디했음을 보여주며, 특히 여주인공의 에로스가 춘향의 에로스를 패러디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원텍스트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목에서 '춘향'을 언급한 것은 고전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원텍스트의 전경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춘향〉에서 주인공이 '춘향'이 아닌 '진주'로 설정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 '진주'의 사랑이 '춘향'의 사랑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진주'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이별을 당한 여성이라는 점, 이별 후 삶의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움'과 '기다림'의 미적 정서[12]를 보여주는 한국 여성이라는 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을 성취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진주'는 고전 〈춘향전〉의 '춘향'을 표방한다. '진주'의 사랑은 '춘향'의 사랑에 대응된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런 춘향〉은 에로스를 중심으로 작중인물 주체 간의 차이를 서사화하고 주체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고

---

11) 에로스는 일정한 지향의식을 갖는 심리적 용어이다. 작품에서 에로스는 사랑에 대한 지향으로 표출된다. 본고에서 에로스는 남녀 사랑과 일정한 지향의식을 갖는 심리적 용어 에로티시즘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정서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이다. 그리움의 정서는 만나고 싶다는 자극에 대하여 상대방을 만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에 따라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또는 만나는 행위가 사회적, 도덕적, 물리적 장애와 부딪혀서 정체되고 유예될 때 출현하게 된다. (박수성, 『들뢰즈』, 이룸, 2004, 72면). 이런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는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수미상관의 서술전략으로 보여준다. 그리움은 연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상대방을 만날 수도,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못함에서 출현된 것이다. 찾아 갈수도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억압된 진주의 모습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옥중에서 시련을 당하는 '억압된 춘향'에 대한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전 〈춘향전〉과 공통적이다. 주체 간의 차이는 우선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고전 〈춘향전〉은 조선의 신분 사회를 배경으로 기녀 춘향과 양반 자제 이몽룡의 현저한 '신분' 차이를 재현했는데, 이런 현저한 '신분' 차이는 〈이런 춘향〉에서도 확인이 된다. 비록 〈이런 춘향〉에서 에로스는 한국전쟁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미군과 한국 여성의 차이로 설정했다. '진주'가 아버지를 여의고 '양공주업'을 하는 계모 슬하에 있는 18세 미만 여성으로 설정되고 진주의 상대 패터슨은 한국전쟁을 돕는 미국의 백인 군인[13]으로 설정되었는데, 그런 설정은 고전 〈춘향전〉에서 기녀 춘향과 양반 자제 이몽룡의 신분적 차이를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넘보기 어려운 선진국이라는 점, 그리고 페터슨이 흑인도 아니고 백인이라는 점은 그의 처지가 양공주업을 하는 계모의 딸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잘 드러낸다. 요컨대 '진주'는 처지가 매우 열악한 '춘향'에 대응하고, '페터슨'은 처지가 우월적인 '이몽룡'에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주체 간의 차이는 남녀의 현실적 '처지'뿐만 아니라 남녀 주체가 에로스로 진입하는 '계기'에서도 확인된다. 고전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은 서로 만나자마자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이몽룡은 춘향을 이성적 호기심 차원에서 바라보고 춘향은 이몽룡을 신분적 격차가 있는 양반 자제가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즉 기생이 아닌 일반 평민 여성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몽룡을 대했다. 〈이런 춘향〉에서도 그와 비슷한 차이를 보인다. 페터슨

13) 〈이런 춘향〉에서 진주의 상대는 미국 군인 중에서도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흑인'은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변학도'에 대응되는 인물로 부상된다. 신분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주가 패터슨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을 통해 진주는 점차 '상냥하고' 상대방을 관심하고 배려할 줄 아는 패터슨에게 끌리게 된다.

이 진주를 대할 때 단순하게 여느 '양공주'들과는 달리 '순수함'이 있고 '청초하고 순박한' 진주에게 매혹되었다면, 진주는 처음에 미국 군인의 외모에 가까이 하지 못하던 중 그나마 페터슨의 '상냥함'에 호감이 가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남성의 열정에 비해 여성은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호감을 지니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 주체 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런 춘향〉은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서사'를 지향하는 고전 〈춘향전〉의 서사 진행 방식을 수용한다. 이몽룡이 기녀가 아니라는 춘향의 마음을 받아주고, 페터슨은 진주의 호감을 잘 키워내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하여 고전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과정을 재현해 주는데, 〈이런 춘향〉은 그와 비슷하게 진주와 페터슨을 통해 주체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에로스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14] 이처럼 안수길은 고전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스토리를 차용하여 주체 간의 차이를 넘어서 에로스로 진입하는 과정을 쉽게 전달하기에 이른다.[15]

이런 에로스는 결핍에서 시작되고 그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가 주체 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남녀가 서로에게 '결핍을 해소시켜 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고전 〈춘향전〉에서 천한 신분의 '춘향'에게 이몽룡은 신분상승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이몽룡에게 춘향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였다. 마찬가지로 〈이런 춘향〉에

14) 물론 진주와 페터슨의 행복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두 남녀가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상태에는 도달한다.

15) 패러디가 기존의 문학적·비문학적 요소들을 현재의 텍스트에 끌어들여 작가의 의도와 목적의식을 드러내는 창작방법의 일환으로 쓰이는 경우, 독자에게 이미 알려진 텍스트나 요소들을 차용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의미 또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정끝별, 『패러디시학』, 문학세계사, 2002, 36면.)

서 페터슨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양공주업'하는 계모의 딸 처지에 놓인 진주의 소외감을 떨칠 수 있게 해주는 '상냥한' 존재이고, 페터슨에게 진주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것이다.

서사 내용의 측면에서 패러디텍스트 〈이런 춘향〉은 또한 에로스의 진행 과정이 "이별-고난-기다림"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전 〈춘향전〉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런 춘향〉에서 페터슨의 제대와 귀국으로 진주는 이별을 맞는데 헤어져 있는 동안 진주는 주변사람이 자신을 '양공주'로 보는 차가운 시선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페터슨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다림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 이는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몽룡과 헤어진 후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당하는 정신적 고난과 옥에 갇히는 육체적 고난을 겪지만 그에 항거하며 이몽룡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기다림의 서사와 비슷하다.[16] 〈이런 춘향〉은 이런 차용을 통해 진주의 고난의 문제를 중점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이별-고난-기다림"의 서사를 지니는 에로스는 주인공의 억압의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과 닮아 있다. 〈이런 춘향〉은 미국 군인과 한국 여성의 에로스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고전 〈춘향전〉과 차이점을 두지만 시대적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서는 동일하

16) 갖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 옥중에서 수난을 당하며 이도령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흡사하다. 이런 점에서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에서 현실지배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투옥된 '춘향'의 억압된 상황, '옥중 수난', '기다림'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춘향〉은 고난 속에서 계속 기다림의 상황을 재현하는데 이는 고난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고전 〈춘향전〉과는 대조적이다.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은 고난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맺는데 반해 〈이런 춘향〉에서 진주는 고난 속에서 기다림의 상황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데서 대비가 매우 극적이다. 이런 전복적이고도 대조적인 상황은 현실의 간극과 작가의 현실적 인식의 흔적을 보여준다.

다. 먼저 거시적으로 보자면, 고전 〈춘향전〉이 에로스를 통해 낡은 신분제도를 악용한 탐관오리의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였다면, 〈이런 춘향〉은 한국 전쟁 직후 미국 주둔군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열악한 처지에 빠진 한국 여성이 양공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하였다. 그 사회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춘향〉에서는 진주를 양공주로 대하는 시선이 불쌍함 내지 동정과 냉대로 균열되는 지점을 포착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을 대하는 시선이 기녀가 아닌 어엿한 여염집 여성으로 보는 시선과 여전히 기녀에 불과하다는 냉소어린 시선으로 균열되는 지점[17]을 포착한 것과 비슷하다.

이처럼 〈이런 춘향〉은 익숙한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몽룡'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주체 간 차이를 극복하고 에로스를 이루어내지만 이별을 통해 여성의 고난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고전 〈춘향전〉과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런 춘향〉은 원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원텍스트를 계승하는 모방적 패러디[18]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19] 드러내되, 1950년대 후반의 전후 사회현실을 부각시키는 데 도달했다

17) 조광국, 「법제적 질서와 사회경제적 변화의 충돌 측면에서 본 『춘향전』〈완판 84장본〉의 작품적 가치」), 429~457면.

18) 패러디는 원텍스트를 계승하는 모방적 패러디, 원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비판적 패러디, 그리고 원텍스트를 중성적으로 발췌· 조합하는 혼성모방적 패러디로 유형화된다. (김미영, 「고정희 시에 나타난 패러디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5면.)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원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

19) 패러디 소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텍스트가 독자에게 낯익은 것이었을 때 패러디 텍스트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원텍스트의 친근한 서사적 구조나 모티프를 제공해서 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와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독자에게 지적인 쾌감을 주는 동시에, 작가로서 당대를 향한 의식을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단, 앞의 논문, 260면.)

고 할 수 있다.

3. 에로스의 회상 형식과 그 양상

원텍스트에 대한 친숙성을 거부하고 차이를 강조하며 문면에 드러나는 패러디는 규범화된 예술 형식을 새롭게 시험하는 낯설게 하기의 문학적 장치이며, 문학적 연속성의 이중적인 본질을 표출하고 문학의 변화를 주도한 역동적인 힘[20]이다.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에 비해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서사방식의 다름에서 차이가 비롯된다. 이는 원텍스트와의 비판적·비평적 거리를 확보하는 서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 〈이런 춘향〉은 진주와 페터슨 사이의 에로스를 고전 〈춘향전〉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21] 배치하지 않고 과거 기억 혹은 회상으로 풀어낸다[22]는 점에서 그 패러디는 재창조의 영역을 확보한다. 작중인물 진주를 통해 회상이 이루어지며 회상은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발전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회상은 과거 기억의 재구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부하여 '현재 시점에서 에로스의 단절'과 '습관적 기억으로

20)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의 패러디』, 1999, 국학자료원, 21면.

21)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위주로 펼쳐진다. '만남-사랑-이별-고난-재회'의 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서사의 중심은 사건의 전개에 있으며 에로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재현하는데 주력하며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표출한다.

22) 〈이런 춘향〉의 에로스는 여주인공 진주의 시각에서 지난날 한국전쟁 직후에 나누었던 미국 군인 페터슨과의 사랑 이야기를 위주로 펼쳐진다. 페터슨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진주를 찾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 후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주의 에로스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수렴되는 자유연상'이라는 두 가지 연계 지점이 있다.

먼저 회상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된 현재 시점에서 시작된다. 현재 진주가 페터슨을 만나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회상 형식의 에로스가 힘을 잃고 말 것이다. 페터슨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주는 페터슨과 과거에 이룬 사랑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페터슨과의 단절 외에도 사회와의 단절을 포함한다. 이것은 작중인물 진주가 회상에 잠기게 되는 계기의 설정을 통해 재현된다. 미국 청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페터슨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물역가에 나온 진주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굳게 닫힌 철문'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상에 잠기게 된다. '굳게 닫힌 출문'은 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단절하는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단절 속에서 회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편지를 통해 무한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지향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단절을 통해 드러난 이런 회상은[23]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24]을 현재 상태에서 재구성해낸 것이다. 회상은 과거의 기억에 바탕을 두지만, 과거의 사실 자체도 아니고, 심지어 과거에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 자체일 수도 없다. 설령 아무리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은

23) 회상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그것은 항상 현재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회상하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 끝나고 난 뒤 그 것을 의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장한 기억이 지식이라면, 회상하는 기억은 개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상기억이 치환, 변형, 왜곡, 가치전도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변학수, 「문학과 기억」, 『독일어문학』 제38집, 2007, 7면.)

24) 기억을 어떻게 재현했는가 하는 것은 회상의 기억을 말하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상호적으로 행위를 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주체는 자신의 특수하고도 일회적인 기억들을 주관적인 현재의 입장에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오가면서 재구성한다. (위의 논문, 17면.)

취사선택 과정을 거치는바, 애초부터 회상은 주관성이 개입되어 재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주의 페터슨에 대한 사랑의 회상(기억)이 진주가 보기에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일지라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랑은 진주가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느낀' 것 혹은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페터슨에 대한 진주의 사랑은 현재의 느낌, 정서, 욕망 등이 결부되어 재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이런 춘향〉은 에로스를 회상의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다.

다른 하나로 회상은 '습관적 기억으로 수렴되는 자유연상'을 통해 전개된다. 페터슨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주는 페터슨과 나누었던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진주는 현재에 벌어지는 상황을 과거의 페터슨과의 사랑에 연계시키곤 한다. 즉 자유연상을 하는데 그 자유연상이 습관적인 기억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미국 청년의 행동을 보면서 과거에 페터슨이 했던 행동과 똑같음을 느끼며, 나아가 그런 미국 청년의 행동을 보면서 페터슨은 '-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런 추측은 일종의 사실처럼 굳어져버린다.

에로스를 담아내는 이런 회상의 형식은 '현재 시점에서 에로스의 단절'과 '습관적 기억으로 수렴되는 자유연상'이라는 연계 지점은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앞의 것이 뒤의 것에 영향을 주고, 다시 뒤의 것이 앞에 것에 영향을 준다. 이런 연계지점에서 이어지는 회상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회귀라는 장면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로스를 다채롭게 담아낸다. 그 양상을 크게 정리해 보면 첫째, 첫 만남에서의 기쁨과 생기에 대한 회상, 둘째, 성적 끌림에 대한 회상, 셋째, 서로에 대한 호감에 대한 회상, 넷째, 재회 약속에서 오는 희열에 대한 회상이다. 회상의 형식에 담기는 에로스는 '만남-교제-사랑-이별-이별 후'의 순서로 이어지면서 에로스를 다채롭게 담아낸다.

(1)여러 가지 인상 중에서 제 이름이 진주인 것을 알았을 때의 일이 가장 또렷이 되살아났다. 이름이 무어냐고 묻는 말에 진주는 대답해 주었다.

『진주.』『친쥬?』...겨우「진주」비슷하게 발음 하고는 싱글거리면서 페터슨은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다이아몬드?』페터슨이 물었다. 천만에. 진주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펄?』페티슨의 다시 묻는 말... 페터슨의 발음에서 진주는 그대 배워두었던 영어 단어를 얼른 생각해 냈다. 잊었던 영어 낱말이 생각났다는 조그만 감동에서 일까? 얼굴에 웃음까지 펼치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생기있는 목소리로『예-스 펄.』

『오호, 펄.』[25]

(2) 핫핫핫 페터슨은 활달하게 웃으면서 팔을 벌릴사하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표정? 그리고 페터슨은 여러말을 했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에 틀림이 없었다. 이름 같이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겠는 것이 페터슨은 영어로 중얼거리면서 움푹한 눈으로 진주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기 때문이다.

금시에 손가락에 털이 무성한 크낙한 손바닥이 볼에 와 닿을 것 같았다. 귀엽다고 볼을 만져주기 위해서... 갑자기 부끄럼과 무섬증이 치밀었다. 동무네 집으로 놀러 가려던 걸음을 돌려 안채로 뛰어들어갔다.『친쭈우.』등뒤에서 페터슨의 정열적인 목소리가 들렸다.[26]

(3) 후에 안 일이지마는 그날의 진주는 페터슨에게 이름이 아니라도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주로 흑인을 상대로 하는 저급한 매음굴에서 청초하고 순박한 한국처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처음 페터슨이 무섭기만 하던 진주도 자주 만

25) 안수길,『풍차』, 동민문화사, 1963, 123면. (이하 작품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로만 표시하기로 함.)
26) 안수길, 124면.

나고 보니 비길데 없이 상냥한 사람이 페터슨이라고 생각 했다. 함께 산보도 했다. 사다 준 목거리를 진짜 진주 목거리인양 대견하게 목에 걸기도 하고 간직해 두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둘은 정이 들었다.[27]

(4) 떠날 때 페터슨이 제대하고는 한국에 나와 살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기를 나으면 어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당부하였다. 그것이 한국으로 나와 살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대사관에 근무하거나 무역회사같은데 취직해 나올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고 페터슨도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고 진주도 계모도 앞날이 환히 티우는 것 같았다.[28]

(1)은 페터슨과의 첫 만남에서 진주는 '진주'라는 발음에서부터 의미를 두고 대화했던 장면에 대한 회상을 펼쳐준다. '여러 가지 인상 중에서 제 이름이 진주인 것을 알았을 때의 일이 가장 또렷이 되살아 난 것'이라고 했듯이, 가장 먼저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된 것은 진주에게 더없이 큰 쾌락을 주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진주는 회상을 통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소통을 부각시킨다. 특히 진주는 자신의 이름인 '진주'의 발음을 열심히 따라하는 페터슨에게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뒤에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려고 하고, 이름에 깃든 의미까지 물어보는 페터슨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진주는 그런 페터슨을 기억하면서 페터슨의 진주 자신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호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진주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는 처음이었기에 또렷한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진주는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과 호감은 진주에게도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은 현실적 처지가 다름

27) 안수길, 124면.
28) 안수길, 125면.

에도 소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기억이 또렷한 것은 비로소 자아 인식의 길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그런 자아 인식은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름의 의미까지 이해시킴으로써 '얼굴에 웃음까지 펼치'는 기쁨을 수반한다.

페터슨과 첫 대면에서 진주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열정'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열정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에로스는 고난과 어려움을 뚫는 생명의 힘을 지니는바, "생기있는 목소리로 『예-스 펄.』"이라고 했듯이 진주는 에로스의 생명력을 확보하는 전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진주는 아버지와 사별한 이후 '심부름을 거리낌없이 시키고 있는 영업자' 계모 밑에서[29]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자신도 이름을 잊은 채로 살고 있던 열일곱 살 여자애였는데 그런 진주의 목소리에 '생기'가 들어선 것이다. 이를 통해 페터슨을 사랑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 진주를 형상화하고 있다.

(2)는 진주가 페터슨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에 대한 회상이다. 진주에게 이 대목은 이성이 주는 느낌(무서움에서 성적 끌림에로의 변화)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한 것이라는 데서 의미심장하게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진주는 페터슨의 행동을 재현시키며 페터슨이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재구성시킨다. 활달하게 웃는 페터슨의 모습과 표정의 의미를 진주는 '재미있고 신기함'으로 해석한다.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에 틀림이 없었다', '이름 같이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었을지 모를 일이었다'에서 보다시피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29) 공주를 치는 어머니다. 그 사실 하나가 말해 주듯이 젊어서는 자신이 영업자 노릇도 한 일이 있는 어머니는 돌아간 아버지와 사변전에 만나서 살림을 편 처지였다. 그러니까 진주에게는 계모였다. 그러고 보니 진주는 가정에서 존재가 희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을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는 진주를 자신의 영업을 하는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고 있는 터이라, 흑인도 아닌 미군과 정이 좋게 지내는 것을 나무래기는커녕 좋은 수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안수길, 125면.)

진주는 페터슨이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재구성시킨다.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주는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페터슨의 눈빛을 상기하고, '금시에 크낙한 손바닥이 볼에 와 닿을 것 같은' 느낌을 재현한다. 페터슨의 목소리가 '정열적'으로 들렸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진주는 페터슨의 성적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으며 진주에게 페터슨은 성적 끌림을 주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 장면에 대한 회상은 진주를 에로스적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은 진주의 회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기반으로 육체의 결합과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길로 나아가게 된 사랑임을 부각시켜준다.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페터슨에게 진주는 '청초하고 순박함'의 이미지를 가진 아름다운 미적 존재로 자리한다. 그후 페터슨은 자주 진주네 집을 찾게 되면서[30] 두 사람 사이에는 빈번한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만남과 교류를 통해 진주는 페터슨을 더욱 깊이 요해하게 되며 페터슨의 인간적 매력에 끌리게 된다. 진주에게 페터슨은 인격적 매력을 겸비한, 외롭고 고립된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비길데 없이 상냥한' 존재의 이미지로 표상된다. 이런 이미지에 대한 기억은 진주에게 페터슨이 더없이 중요한 존재가 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이들 둘은 함께 산보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하는 사이 둘은 정이 들었으며

30) 페터슨이 진주의 집을 자주 찾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불확정적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일종의 휴마니티와 같은 감정일까? 로맨틱한 감정일까?'(안수길, 124면.)라는 표현으로 서술자는 진주를 만나는 페터슨의 행동에 대해 불확실성을 보여주지만 '색시'가 아닌 '진주'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 즉 에로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런 서술을 통해 서술자는 페터슨의 진주에 대한 감정이 사랑보다는 휴머니즘적 차원에 가까움을 암시한다.

성적 사랑으로 승화되어 에로스는 완결성을 갖춘다.

(4)는 페터슨이 떠나가기 전 진주에게 했던 약속들에 대한 회상이다. 회상의 장치를 통해 꼭 돌아와 한국에서 같이 살겠다는 약속,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과 다짐들을 떠올리며 그 약속들이 주는 미래에 대한 기대, 기쁨과 희열을 만끽한다. 미래 약속에 대한 회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서 부풀어 미래지향으로 이어지게 하며 끝까지 기다림을 지속하게 한다. 이는 과거에 누렸던 에로스를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부재하는 에로스에 대한 갈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회복 욕망을 수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이런 춘향〉은 회상이라는 서사적 전략을 통해 원텍스트와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작중인물을 통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발전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회상은 과거 기억의 재구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에로스의 단절'과 '습관적 기억으로 수렴되는 자유연상'이라는 두 가자 연계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계지점에서 이어지는 회상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로스를 다채롭게 담아낸다. 이런 과거 기억들은 회상을 통해 재구성되며 좌절된 진주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중인물 진주의 에로스는 회상이라는 독특한 서사방식에 의해 과거에 누렸던 에로스를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부재하는 에로스에 대한 갈구의 특징이 부여된다. 이에 에로스는 단순한 과거 기억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를 넘어 과거 사랑의 세계로 푹 빠져 기다림의 에로스를 지속한다.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은 해피엔딩을 맞아 기다림의 형태를 종결하지만 패러디텍스트 〈이런 춘향〉에서 진주는 끝까지 기다림을 지속한다. 이를 통해 패러디텍스트는 작품성을 획득하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게 된다.

4. 회상을 통해 드러낸 에로스의 의미

1950년대는 이산 가족, 전쟁의 상흔, 생활 터전의 상실, 자아의 상실, 전통적 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붕괴의 시대이며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모색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31] 그 시대에 출현한 전후소설[32]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전쟁 이후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담아냈는데, 그중 〈이런 춘향〉은 당대 사회 문제를 회상 형식을 통한 에로스로 포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 장에서는 〈이런 춘향〉을 대상으로 회상을 통해 드러난 에로스의 의미를 시대와의 관련 속에서 에로스의 억압, 분출, 결말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주의 에로스는 냉랭하고 폄하하는 주변의 시선에 의해 억압된 형태를 보인다. 진주는 외부의 시대적 사회적 환경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의 차별적 편견 앞에서 회상의 에로스를 통해 과거의 사랑에 머물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진주의 에로스는 "전쟁의 고통→사람들의 무기력→주변의 진주를 향한 편견→진주의 과거 회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억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된 에로스는 전후 한국사회의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시대적 상황을 은유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런 춘향〉은 소설은 이런 억압된 에로스의 형태를 통해 사회 자체의 문제를 고발하고자 한다.[33]

---

31) 김용구,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김용구·김훈 외), 淸文閣, 1996, 37면.

32) 전후소설은 통상 정전 협정(1953년) 이후부터 4·19 혁명(1960년)이 일어났던 196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 동안에 출간된 작품들을 일컫는다. (신경득, 『한국 전후소설 연구』, 일지사, 1983, 82면.)

33) 동시대의 미군-한국여성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안수길의 〈파란 눈〉을 들 수 있다. 김윤식이 정리한 안수길의 작품 연보에 따르면 〈파란 눈〉은 안수길이 같은 해에 〈이런 춘향〉을 발표하기 전에 『新太陽』에 간행했던 단편소설이다. (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몽룡'의 에로스를 '한국여성-미군'의 에로스로 패러디하여 한국 전쟁 직후 미국 주둔군이 여성을 버리고 감으로써 한국사회에 남겨진 여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시대성을 띤 작품이다[34]. 〈이런 춘향〉은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사회에 남겨진 여성문제를 여주인공 진주의 어려운 삶을 통해 고발한다. 미군 페터슨과 사랑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지만 페터슨의 제대와 귀국으로 진주는 이별을 당한다. 편지 몇 통은 있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면서 연락처조차 알 수 없게 된다.[35] 미국으로 찾아갈 수 없게 된 진주는 오로지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 페터슨의 소식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회상과 기다림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로운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진주의 이런 처참한 삶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지원군으로 주둔한 미군이 한국여성을 버리고 가버린 상황이 한국여성에게 가져다준 삶의 비극에 대한 현실적 반영이다. 이로써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사회에 남겨진 여성문제가 표면화된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문제는 남성의 부재로 '버려진' 신세가 되고

윤식, 『안수길』, 志學社, 293면.) 〈파란 눈〉은 주로 남편과 아들들, 주위 사람들에게 '불신과 배척'을 당하는 옥순의 모습을 통해 양공주와 혼혈인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파란 눈〉이 실제로 양공주의 삶의 실태를 다룬 작품이었다면 〈이런 춘향〉은 양공주가 아닌 한국여성도 남성의 부재로 주변으로부터 양공주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둔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에로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춘향〉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그만큼 작가에게 미군의 주둔으로 남겨진 여성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34) 패러디를 통해 적극적인 현실적 반영을 시도한 이것은 패러디가 적극적인 현실 개입의 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호규, 「1960년대 패러디 소설의 반영론적 성격 연구」, 『어문논집』 42, 중앙어문학회, 2009, 408면.)

35) 이것은 그 당시 많은 미군이 한국여성을 버리고 가버린 상황에 대한 현실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양공주’[36] 취급을 받는 문제로 전락되면서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데서 주목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춘향〉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고 ‘양공주’로 취급을 당하는 억압 속에서 에로스를 갈구하는 한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변인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진주의 억압은 한 개인과 집단의식, 나아가 사회의식과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부여된다. 이런 현실적 억압은 그 시대의 풍속과 문화의식형태의 지배에서 오는 억압이다. 〈이런 춘향〉에서 진주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은 구체적으로 진주의 계모, 주인집 영감의 아들(학생), 주인집 영감, 이웃 사람들, 미국 청년에 의해 형상화되며 부정적 시선이 주를 이룬다. 그중 진주의 계모의 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애기는 새파란 눈에 금발인 아들이었다. 외조모가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애기를 낳을 무렵에는 그 영업도 거두고 양공주를 치던 방을 고쳐 구멍가게를 크게 차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파란 눈에 누런 머리의 외손주가 창피한 탓이었을까? 천하게 이름을 지어 장수를 빈다는 뜻과는 달라 진주계모의 속심에는 자신의 전업(前業)을 감추고 진주를 나무래는 뜻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로 그 이름과 같이 더러운 생명이라는...

36) 진주가 양공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공주로 취급당함은 양공주가 많았던 그 당시 사회의 일면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양공주는 광복 이후 옛 일본군의 주둔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겼지만 한국전쟁 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늘어나 거의 준공식적 존재가 되었다. 당시 미군기지 주변으로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소매업, 유흥업 또한 성행하였는데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고, 여기에 양공주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었다. 우선 여성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극도의 생활난과 남성부재라는 현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하나요, 수십만에 달하는 미군을 비롯한 군인이라는 특수하고 격리된 ‘남성’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1950년대 말, 이 두 부류(외국군위안부, 내국인 상대의 매춘녀)의 성매매 여성들은 거의 비슷한 숫자였고, 전국에 모두 약 15만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었다. (김원회 지음, 『한국 성사』, 북랩, 2015. 330~331면.)

> 귀엽게는 여기면서도 애기와 함께 그 어미를 계모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심정에는 다름이 없었다. 『개똥이는 어디 고아원에나 마끼고 너는 옳게 시집을 가야지. 허구헌날 그 페터슨인지 무언지, 함흥차사가 된 양서방만 기다리구 있겠느냐?』 그러고는 벽돌공장으로 돈량을 착실히 모은 김주사의 소실로 들어가라고 이번에는 강요하다싶이 했다.[37]

위의 내용은 진주와 진주의 자식에 대한 진주 계모의 시선과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란 눈에 누런 머리의 외손주가 '창피'하게 여기고 '더러운 생명'이라는 데서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외조모, 애기와 함께 그 어미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며 재가를 강요한다. 이것은 사회적 시선의 강압에 그 원인이 있다. 진주의 계모는 진주의 가장 친근한 친인척을 대표한다. 유일한 가족의 일원 진주의 계모 형상은 사회적 시선과 동화된, 사회의 보편적인 의식을 대변해준다. 이런 사회적 시선은 전 사회성을 띠며 성과 사랑의 인식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런 인식은 그 당시 1950년대 시대상황과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인식과 풍조와 맞물린다. 이런 사회적 냉담한 시선은 그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진주를 대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울 뿐이다. 물론 진주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 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아들이 '고학자리' 즉 과외 자리를 잃자 낙담하여 진주에게 더 이상 따스한 시선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아들의 '고학자리'에 낙망할 정도로 영감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바, 그런 영감의 생활상은 한국전쟁 직후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감의 변화는 진주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층 더 가미하는바, 진주를 마음으로나마 위로하는 이웃이 전혀 없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37) 안수길, 126면.

이와 같이 현실시점에서 진주는 페터슨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따뜻함은 없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자신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는 격하되고 심지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진주는 그러한 차가운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순수와 열정을 지니는 사랑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런데 진주에게는 페터슨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 즉 '지금 여기에' 없는 존재인 탓에 그 에로스는 회상의 차원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한 진주의 에로스를 두고 '그 사랑은 과거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현재 이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주변 인물들과 '그 사랑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미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진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 주변 인물은 남성의 부재로 진주의 사랑이 헛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주변 인물의 시선은 진주의 회상의 차원에서 벌이는 에로스를 억압하는 사회 통념, 혹은 사회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주의 에로스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진주에게 결코 작지 않은 억압의 형태를 띤다.

이런 억압된 에로스가 역설하는 것은 암담한 전후 현실이다. 이런 암담한 전후 현실의 억압 속에서 에로스는 회상의 형식으로 펼쳐지게 된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을 회상으로 이루어내는 진주의 에로스는 자연스럽게 진주의 내면세계에서 그 편폭을 넓혀 에로스의 완성을 꾀하게 된다. 그러한 진주의 에로스는 강렬한 의지를 수반한다. 진주는 끝까지 '기다리고야 말 것이다'라는 의지를 강화하면서 더욱 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 사랑을 회상 속에서 재구성하고 완성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렇듯 〈이런 춘향〉에서 회상을 통해 드러난 에로스는 자기 자신으로 빠져드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시대상황에 대한 은유의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외부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로 향하는 회상으로 펼쳐진 에로스의 속성을 통해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시대적 상황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춘향〉은 억압된 에로스가 회상을 통해 분출되는 양상을 통해 고난의 극복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전후 소설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춘향〉에서 억압된 에로스는 회상의 형식을 통해 현실의 상황을 뚫고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며 당시 전후 현실을 극복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이때 회상은 에로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 탈출 욕구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난의 극복지향과 맞물린다. 〈이런 춘향〉에서 작중인물 진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회상을 통해 에로스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띠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 회상을 통해 지속되는 에로스는 진주를 버텨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이다.[38] 이는 진주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한국사회 구성원에게 닥친 고난을 헤쳐 나가는 삶의 원동력임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회상을 통해 드러난 에로스가 고난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미래 지향성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이런 춘향〉에서 작중인물 진주의 에로스는 단순한 기억과 과거 회귀 자체로 그

38) 페터슨이 그리울 때마다 진주는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진주에게 있어서 회상을 통한 상상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버팀목, 정신적 역량으로 부상된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에로스에 대한 회상과 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상과 상상을 통해 표출된 에로스는 전적으로 상향적이고 정신적 힘으로 강화되는 에로스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데서 특징적이다. 이는 아래 대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페터슨이 그리울 때마다 계모가 시집 가라고 졸를 때마다, 슬그머니 꺼내 내용을 마음 내키는 대로 상상하여 가면서 위로를 받던 편지인 까닭이었다. (안수길, 129면.)

치지 않고, 과거의 에로스를 재구성하여 현재 이후 미래지향적인 기다림의 에로스로 전변되어 간다는 데서 미래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미래 지향성이 작중인물 진주에게 미래에 대한 무한한 상상과 동경과 '훤히 트인' 앞날을 가져다주듯이 이는 전후현실의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작가의 시도에서 설정된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결말에서 회상 형식의 에로스가 두 갈래 갈림길에 놓인다는 설정을 통해 한국 미래의 전망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춘향〉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는 기다리던 페터슨이 돌아옴으로써 에로스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해피엔딩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페터슨을 기다리다가 영원히 회상 속에 머묾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자기파멸이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다. 진주의 에로스는 이러한 두 갈래 길로 나아가기 전에, 진주와 주변사람들의 회상 형식의 에로스에 대한 이견이 부딪치는 지점을 포착해냈다. 작가는 이런 모순되는 지점을 통해 혼란스러운 전후 한국 사회 현실을 은유하고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결단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은 끝났지만 이 소설이 창작되던 시대에도 여전히 분단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 나름의 문제 제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며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이런 춘향〉에 나타난 에로스의 차용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살펴본 결과 〈이런 춘향〉은 고전 〈춘향전〉에서 '춘향-이몽룡'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제목, 주체 간의 차이, 서사세계와 사회적 문제를 통해 유사성을 확보했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이런 춘향〉은 주체 간 차이를 극복하고 에로스를 이루어내지만 이별을 통해 여성의 고난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원텍스트를 전경화하고 원텍스트에 대한 일치와 친밀성을 보여주면서 차이를 통해 비평적 거리를 조성하고 창의성을 보장하며 사회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한다. 이런 점에서 〈이런 춘향〉은 원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원텍스트를 계승하는 모방적 패러디의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익숙한 고전 〈춘향전〉의 에로스를 차용하여 작가는 독자를 쉽게 확보하고 당대를 향한 의식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창출하며 1950년대 전후문제를 표면화하기 위한 목적에 도달한다.

고전 〈춘향전〉과 달리 〈이런 춘향〉은 회상이라는 서사적 전략을 통해 원텍스트와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작중인물을 통해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발전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회상은 과거 기억의 재구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에로스의 단절'과 '습관적 기억으로 수렴되는 자유연상'이라는 두 가자 연계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계지점에서 이어지는 회상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로스를 다채롭게 담아냈다. 이런 과거 기억들은 회상을 통해 재구성되며 좌절된 진주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중인물 진주의 에로스는 회상이라는 독특한 서사방식에 의해 과거에 누렸던 에로스를 그리워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부재하는 에로스에 대한 갈구의 특징이 부여된다. 이에 에로스는 단순한 과거 기억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를 넘어 과거 사랑의 세계로 푹 빠져 기다림의 에로스를 지속하게 됨으

로써 새로운 의미를 확보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춘향〉은 당대 사회 문제를 회상 형식을 통한 에로스로 포착한다. 회상을 통해 드러난 에로스를 시대와의 관련 속에서 그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펴본 결과 〈이런 춘향〉에서 작중인물 진주의 에로스는 냉랭하고 폄하하는 주변의 시선에 의해 억압된 형태를 보인다. 진주는 외부의 시대적 사회적 환경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의 차별적 편견 앞에서 회상의 에로스를 통해 과거의 사랑에 머물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진주의 에로스는 "전쟁의 고통→사람들의 무기력→주변의 진주를 향한 편견→진주의 과거 회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억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억압된 에로스는 전후 한국사회의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시대적 상황을 은유하는 장치로 작동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런 춘향〉은 억압된 에로스가 회상을 통해 분출되는 양상을 통해 고난의 극복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전후소설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궤를 같이 한다.

셋째, 결말에서 회상 형식의 에로스가 두 갈래 갈림길에 놓인다는 설정을 통해 해피엔딩과 자기파멸이라는 두 갈래 갈림길로 나아가기 전의 모순된 지점에 천착하여 한국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결단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해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후소설은 전쟁의 충격과 그 극복 방식을 모색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장용학의 〈요한 시집〉, 전광용의 〈꺼삐단 리〉, 이범선의 〈오발탄〉, 손창섭의 〈잉여인간〉, 서기원의 〈암사 지도〉, 박경리의 〈불신 시대〉, 안수길의 〈제삼 인간형〉 등은 이 시대의 대

표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장용학은 소설에서 전후 실존주의의 수용과 변용을 그리고 있으며, 손창섭은 전쟁의 충격에 따른 인간의 불모성,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행위 그리고 전쟁 이후의 새로운 질서의 탐색 등을 형상화하였다.[39] 〈이런 춘향〉은 전쟁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고 전후시대 고난의 극복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다른 전후 소설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그 궤를 같이 한다. 안수길의 〈이런 춘향〉은 전쟁 직후 한국사회의 현실문제-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사회에 남겨진 여성문제, 이런 여성문제를 대응하는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 즉 그 시대의 풍속과 문화의식형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고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여성의 고난을 통해 전후 사회문제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은 동시대 작품보다 앞서 가고 있다. 더 나아가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9) 김용구,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 김용구·김훈 외,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淸文閣, 1996, 37면.

■ 참고문헌 ■

1. 자료

안수길, 『풍차』, 동민문화사, 1963.

2. 단행본

김윤식 ·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원회 지음, 『한국 성사』, 북랩, 2015.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린다 허천, 김상구 ·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박수성, 『들뢰즈』, 이룸, 2004.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신경덕, 『한국전후소설연구』, 일지사, 1983.

이미란, 『한국 현대 소설의 패러디』, 1999, 국학자료원.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정끝별, 『패러디시학』, 문학세계사, 2002.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사랑학』, 교문사, 2004.

H.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김인환 역, 나남출판, 1999.

R.벨라 · R.매드슨 · W설리반 · A.스위들러 · S.팁튼, 김명숙 · 김정숙 · 이재협 공역, 『미국인의 사고와 관습』, 나남출판, 2001.

S. 프로이트, 『문명속의 불만』,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7.

S. 프로이트, 『정신분석입문』, 김양순 역, 동서문화사, 2010.

Th. W. 아도르노, 『미학이론』, 홍승용 역, 문학과지성사, 1984.

W. 라이히, 『성 정치』, 윤수종 역, 중원문화, 2012.

3. 논문

김미란, 「만주, 혹은 자치에 대한 상상력과 안수길 문학」, 『상허학보』 제25집, 상허학회, 2009, 273~307면.

김미영, 「고정희 시에 나타난 패러디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미옥, 「안수길의 북간도연구」, 『돈암어문학』 제17집, 돈암어문학회, 2004.

김용구,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김용구 · 김훈 외), 淸文閣, 1996, 37면.

방금단, 「현대소설의 패러디 양상 연구」, 『돈암어문학』 27, 2014, 253~283면.

박은숙, 「안수길 소설연구 : 만주체험 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변학수, 「문학과 기억」, 『독일어문학』 제38집, 2007, 1~20면.

이남호, 「안수길 단편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집, 2013, 253~270면.

이승준, 「한국 패러디 소설의 가능성」, 『국제어문』 40, 국제어문학회, 2007, 14~28면.

이호규, 「1960년대 패러디 소설의 반영론적 성격 연구」, 『어문논집』 42, 중앙어문학회, 2009, 406~435면.

조광국, 「<천수석>에 구현된 에로스의 양상과 작가의 비판의식」, 『고소설연구』 43, 한국고소설학회, 2017.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 인식」, 『한국문학논총』 56, 2010, 451~479면.

한승우, 「최인훈의 작가의식과 패로디 소설 고찰」, 『語文論集』 第46輯, 383~408면.

<Abstract>

The borrowing aspects of eros and the significance in *This Chunhyang* －At the center of pastiching *Chunhyangjeon*－

ZHU YINSHU

The study is based on *This Chunhyang* which is adopted from the classical works *Chunhyangjeon* and its objectives is to investigate the borrowing aspect of Eros and its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Chunhyang* through love, inheriting and simulating classic work on the aspect of shaping the emage of the title, depicting subject diversity, expressing narrative content and reflecting social problem. Through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it is the embodiment of eros that overcome the different. Through the narrative process of farewell-suffering-waiting, Eros of Waiting is clearly reflected, which eventually leads to the suffering and social problems of female. Through high similarity with classical text *This Chunhyang* can keep a intimate relationship with it. In this point, *This Chunhyang* shows an imitative parody of inheritance rather than criticism of original text. Making use of well-known classic novel <Chunhyangeon> to assure a larger readers. Meanwhile it can easily achieve author's goal of parsing the social problems after the war that happened in 1950.

At the same time, Eros strats with recalling the author used the

recalling narrative wags on narrative strategy to make sure the differences with the classic text. Recalling is under way on the condition that is accompanied by external isolation. It will fully show the strong surges of nostalgia for the past love and a wonderful vision for the future.

In short, depressed Eros expresses the postwar social problems of Korea and the will of overcoming the suffering through the narrative way of recalling which connects with the other postwar. Through recalling, *This Chunhyang* also focuses on the female issues and implies country in the period of important choice, which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novel. In addition, it focuses on female's suffering problems, thus put forward the social problems, which has a great influence.

Key words: An Sugil, *This Chunhyang,* pastiche, eros, borrow, recalling narrative.

투 고 일 : 2017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